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19일 논산 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3000여 장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계사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이 대표 장병들에게 삼보륜 도장으로 연비를 해주는 모습.



계사 일면 스님이 수계 장병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는 모습.



호국연무사 주지 원상 스님이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 증서 3000장을 전달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호국연무사 군종병 김인수 병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명예 전당에 헌액했다.

"佛法 만난 귀한 시간… 이타심 가져라"

본지 · 생명나눔 공동기획

생명나눔은 자비입니다

⑦ 생명나눔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현장



법회 참석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일면 스님, 3000여 장병에게 법문
"五戒, 인생에 필요한 규범" 강조
수계 장병들 '참회진언' 봉독하며
삼보륜 도장 연비 받고 불자 거듭
기증 희망등록증서 3000장 전달도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큰법당을 가득 메운 3000여 명의 장병들이 합장을 하고 '참회진언'을 외웠다. 수계 장병들 사이로 수계사들이 장병들의 팔뚝에 삼보륜 도장으로 연비 의식을 행했다. 장병들은 수계 이전 오계를 어긴 과거를 참회하며 앞으로 오계를 어긋남 없이 지킬 것을 서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0월 19일 논산 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호국연무사 주지 원상 스님, 육군부사관학교 법사 명법 스님, 이승훈 육군훈련소 신도회장(25연대장),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 박종우 홍보위원회장, 김남명 홍보위원회 수석부회장, 불암사 신도 등 100여 명이 내외빈으로 참석했다.

수계법회에는 훈련소 수계 장병 30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청성 · 청법가 · 청사 · 개도 및 법문 · 연비 · 귀의 · 기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계사 일면 스님은 개도(開導)와 법문을 통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오계 수지의 중요성을 설하고 불자로 거듭난 수계 장병들을 축원했다.

일면 스님은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부처님이 되는 터전이 되는 것"이라며 "어두운 밤에 길을 가려면 등불이 있어야 하듯이 생사윤회를 벗어나 부처님이 되려면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자가 아니라도 오계는 인생을 살면서 꼭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부처님의 오계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신조이며 행동 강령이다. 계를 수지함은 어두웠던 동굴에 전기불을 밝히는 것과 같이 억겁의 무명을 일시에 타파하는 것"이라고 설했다.

이어 "선행의 표준인 오계는 선은 점점 더 닦게 해 행복을 더욱 커지게 만든다. 장병들은 계를 수지함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 오늘의 귀중한 인연으로 장병들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이라며 "자기 몸을 희생해 비둘기를 구한 전생의 부처님처럼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수계법회 후에는 호국연무사 주지 원상 스님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증서 3000장을 일면 스님에게 전달했다. 생명나눔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많은 노력을 해 준 호국연무사 군종병 김인수 병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명예 전당에 헌액했다.

또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손재현 동국대 교육대학원 교수 무용단, 논산 율동팀으로 구성된 댄스팀 등이 화려한 공연을 선보여 장병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호국연무사는 생명나눔의 정기적 수계법회와 위문 문화공연 등이 훈련소 장병들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지 원상 스님은 "생명나눔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사찰이나 단체는 많지 않다. 문화공연과 위문품들은 장병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생명나눔의 수계법회와 문화공연은 불교 입문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수계법회에 동참한 생명나눔 회원들의 호응도 높았다.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은 "법회 동참은 이번으로 3번째"라며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해 준 3000여 장병들의 자비행에 감사하다. 또한 일면 스님의 법문을 가까이서 듣게 되어 정말 좋았다. 앞으로도 이 같은 법회가 더욱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우 생명나눔 홍보위원회장은 "1975년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고 44년만에 다시 찾았다. 젊은 장병들의 힘찬 모습에 좋은 기운을 받아간다"면서 "생명나눔운동에 크게 마음을 내준 장병들이 자랑스럽다. 오늘의 수계 공덕으로 제대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논산=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11월

'생명나눔-행복나눔 태권도연합회' 캠페인
· 날짜: 11월 3일(일) · 장소: 국기원

제10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 날짜: 11월 10일(일)
· 장소: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장기 및 조직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 날짜: 11월 14일(목)~11월 17일(일) · 장소: SETEC

광주 · 전남지역본부 '무등산 걷기대회'
· 날짜: 11월 17일(일) · 장소: 광주 무등산

중부대 생명나눔 업무협약식
· 날짜: 11월 22일(금) · 장소: 중부대 고양캠퍼스

육군훈련소 군 장병 대상 '장기 및 조직기증 희망등록 교육'
· 날짜: 11월 24일(일) · 장소: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법당

고3 수험생 대상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교육
· 날짜: 11월 말 · 장소: 남양주 광동고 · 의정부 광동고

생명나눔실천본부 온라인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1-764580
국민은행	006-01-0770-038
우리은행	010-073780-13-101
기업은행	024-037428-01-016
우 체 국	010579-01-001564
농 협	053-17-001346
환자돕기(농협)	053-01-243778
신도등록(농협)	301-0044-4629-71

후원문의 : (02)734-8050

